

야구

4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월랜드, 6승 찍었다 전반기 깔끔 마무리

롯데전 6이닝 1실점 6K 호투



KIA 월랜드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조 월랜드(29)가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깔끔하게 마쳤다.

월랜드는 17일 광주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해 6이닝 1실점 6삼진의 호투로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개인 6승(6패)째도 수확하며 기분 좋게 다가오는 후반기를 준비하게 됐다. 월랜드는 전반기 내내 기록 있는 모습으로 코칭스태프에 불안감을 안겼다. 클리닉 스타트 이상의 활약을 했다가도 다음 선발 등판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투구를 계속했다. 또 다른 외인 투수 제이콥 터너도 함께 부진하자 KIA의 고민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최근 등판에서는 분명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6일 LG 트윈스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최고의 투구를 했고, 11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패전의 멍에를 썼지만 7.2이닝 4실점으로 나름 제 몫을 했다. 이날 롯데전에서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 7월 등판한 세 경기에서 모두 안정감을 보였다.

구위에서 먼저 상대를 압도했다. 2회 제이콥 월슨부터 3회 신봉기까지 무려 5타자를 연속해서 삼진으로 처리했다. 빠른 볼 최고 구속이 시속 151km까지 나왔을 정도로 공에 힘이 있었다. 변화구는 커터, 커브, 체인지업을 적절하게 섞어 던졌다. 5회 월슨에게 솔로포를 허용한 게 유일한 실점이었다. 타선의 화끈한 지원은 없었지만 든든한 계투진의 지원으로 승리를 쟁길 수 있었다. KIA는 월랜드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임기준~박종표~문경찬이 모두 무실점으로 활약해 최종 3-1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광주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시즌 22호포 광…SK 최정, 홈런 단독 선두

연이틀 대포쇼…못 말리는 거포 본능

LG전 썩기 투런…팀 8-2 승리 견인
328홈런…역대 6위 심정수와 타이



제대로 탄력을 받았다. SK 와이번스 최정(32)이 2연속경기 홈런을 터트리며 되살아난 타격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결정적인 순간 시즌 22호 홈런이 터졌다. 최정은 17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 3회 3-2에서 5-2로 달아나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로써 개인 통산 328호 홈런을 마크한 최정은 역대 통산 최다 홈런 6위의 심정수(은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KIA 타이거즈 이범호가 329홈런(역대 5위)을 끝으로 13일 은퇴하면서 사실상 현역 중 최다 홈런 기록을 지닌 것은 최정 뿐이다. 이날 최정의 홈런을 발판삼아 8-2 승리를 거둔 SK는 4연승 행진을 달리며 단독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선발 투수 박종훈에게 시즌 7승째를 안겼다.

출발부터 상당히 순조로웠다. 1회 테이볼 세터로 나선 김강민, 노수광이 상대 선발 이우찬을 상대로 연속 안타로 밥상을 차렸다. 클린업 트리오의 출발점

을 맡은 최정으론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곧장 좌익수 방면 적시타를 뽑아 김강민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제이미 로맥의 안타, 고종욱의 유격수 땅볼로 2점을 추가한 SK는 경기 초반부터 LG의 기세를 확실히 눌러냈다.

최정은 팀의 간판타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적재적소에 팀에 필요한 타점을 책임졌다. 3-2로 근소하게 앞선 3회에는 특장점인 화끈한 한 방으로 팀을 웃게 했다. 1사 주자 3루 상황에서 이우찬의 2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월 홈런을 폭발했다. 기세를 몰아 7회에도 뜨겁게 달아오른 팀의 공격 흐름을 철저히 이어줬다. 6-2로 앞선 7회 2사 주자 3루 상황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뽑아 앞선 주자 김강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에 질세라 로맥도 좌중간 2루타를 뽑았고, 최정은 연이어 홈을 밟았다. 이날 4타수 3안타(1홈런) 4타점 3득점을 기록한 최정은 SK의 득지한 해결사였다. 이를 연속 홈런포이자, 이를 연속 4타점의 맹활약.

LG 상대 워닝 시리즈를 확정지으며 4연승을 달린 SK는 전반기 최종전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인천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SK 최정이 17일 인천 LG전 3회 1사 3루에서 좌월 2점홈런을 폭발하고 있다. 이를 연속 아치이자 시즌 22호 홈런. 개인 통산 328번째 홈런을 기록한 최정은 이 부문 역대 6위 심정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타구를 응시하고 있는 최정.

인천 | 김민상 marineboy@donga.com

감독부터 전력 다해야 진정한 올스타전



이경호의 해피 존

‘야구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기자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레너드 코페트는 올스타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올스타에 뽑힌다는 것은 선수에게 대단한 명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올스타로 뽑힌 뒤 올스타전 이 비로 취소되는 것이다.”

팀 성적, 자신의 시즌 기록과 상관없는 올스타전에 대한 많은 선수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문장이지만 야구와 선수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왠지 쓸쓸해진다.

그러나 모든 선수가 올스타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감독 시절 자신의 팀 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 영구 제명됐지만 선

수 때는 ‘최고 중의 최고’였던 피트 로즈는 올스타전에서도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허슬 플레이어로 인기가 높았다. 1970년 올스타전 연장 12회말 2사 2루에서 후속 타자의 안타가 타지자 홈으로 질주했다. 이미 포수 레이 포시는 송구된 공을 잡고 홈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충돌방지 규정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올스타전이었다. 모두가 로즈의 트레이드마크인 헤드 퍼스트슬라이딩을 보여주며 아웃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로즈는 그대로 달려가 강하게 포수와 충돌했다. 포수는 공을 떨어트렸고 로즈는 결승점에 성공했다. 경기는 이겼지만 레이 포시는 올스타전에서 쇄골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로즈는 “올스타전은 축제지만 승부를 가리는 경기다”고 말했다.

몇 해 전 현역에서 은퇴를 앞둔 진갑용 삼성 라이온즈 배터리 코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승도 많이 했고 행복했다. 아쉬운 순간? 이걸 말해도 될까… 2010년 올스타(대구시민구장) 때 8회까지 2안타를 쳤다. 8-8 동점이었던 9회말 무사 2-3루에 다시 기회가 왔다. 결승타를 치면 무조건 ‘미스터 올스타’가 될 수 있는 찬스였다. 그러나 존경하는 스승님 (상대팀) 조병현 감독이 고의사구 사인을 내더라. 하하”

조병현 전 감독은 당시 웨스턴리그 사령탑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턱아웃에서 동시에 ‘고의사구’라는 말이 나왔다. 올스타전이지만 승부욕은 발동하기 마련이다. 진갑용에게는 미안했지만 승부는 승부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음타자 황재균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고 기억했다. 조 전 감독과 진 코치는 최고의 포수로 성장을 함께한 특별한 사제지간이었지만 승부는 승부였다.

올스타전은 팬들을 위한 큰 선물이다. 팬과 동료 선수가 뽑은 최고 인기 선수가 베이스트로 출전하고 리그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감독추천 선수로 함께하는 것이 팬들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

그러나 올해 이 원칙을 감독들이 스스로 무너트렸다. 드림팀 사령탑인 SK 와이번스 염경엽 감독은 소속팀 주전 포수 이재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올스타전에 뽑지 않았다. 이재원은 팬 투표에서도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에 이어 2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올스타전에 뛰어야 하는 포수지만 팬이 아닌 팀을 위해 꼭 쉬게 됐다. 감독부터 선수 선발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니 누가 올스타전에서 전력을 다할까? 로즈의 말처럼 올스타전도 승부를 가리는 야구 경기다. 팬들은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스포츠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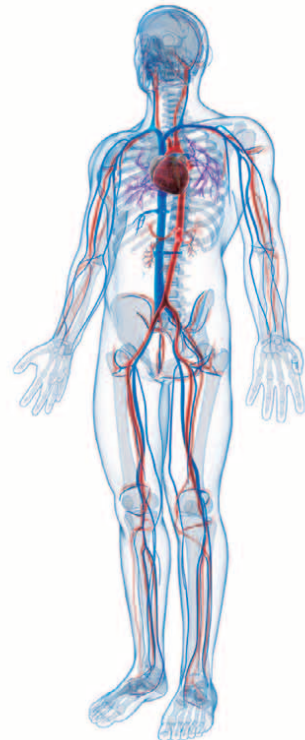
20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첨단 생명과학 선진 재생의료 어디까지 왔는가 “설명회 개최 전화예약 접수중”

온 인류의 적 각종 “암”, 난치성 질환, 노인성 질환, 급만성 질환
신경계 질환, 각종 성인병, 안티에이징, 원인불명 질환, 난치병 등의 극복을 위한
해외 첨단 생명과학 선진 재생의료(세포치료) 어디까지 왔는가? - “설명회 개최”

당신은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중에 있습니까?

아래 질병에 해당되는 분들께 첨단 생명과학 선진 재생의료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정보(책자 유상) 제공
첨단 면역항암치료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정보(책자 유상) 제공

각종 “암”, 간경변증, 폐섬유증,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폐증, 다제내성 결핵, 천식,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뇌손상 후유증, 파킨슨, 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 안면마비, 신경통, 두통(원인불명), 척추신경손상, 갑상선 기능이상, 다발성 경화증, 심근경색, 만성신부전증, 심부전, 협심증, 버거씨병, 혈관염증 및 괴사증, 혈우병, 재생 불량성 빈혈, 만성 췌장염, 크론병, 루프스(홍반성 낭창), 대상포진, 면역질환, 혈액정화, 피부괴사증, 1,2형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당뇨병 합병증, 당뇨병성 신부전증, 지방간, 위장장애, 위식도 역류질환, 부신백질 이영양증, 고셔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척추통증, 골관절염, 연골손상 류마티스, 탈모, 무모증,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아토피 피부염, 안티에이징, 동맥수술, 만성피로, 불면증, 갱년기 증후군, 병명을 알지 못하는 질환 등



서울 1522-7389
경기 1522-6589
충주/충북 1522-5697
대전/충남 1522-5697
대구/경북 1522-5697
부산/경남 1522-5697
전주/전북 1522-5697
광주/전남 1522-5697
강원도 1522-5697
제주도 1522-5697

BIOINS
(주)바이오인스

상담전화 1522-7389

국가별 해외 지사/ 국내 지역별 지사모집, 전국 지역장/ 부녀사원 모집